

여름철 휴가기간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

I 여름철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S M A R T 교육품질 제일주의

- ▶ 여름철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으로는 **살모넬라균 감염증, 장병원성 대장균 감염증, 비브리오패혈증, 쯤쯤가무시증,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(SFTS), 일본뇌염, 말라리아**등이 있습니다.

【살모넬라균 감염증,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】

2018.06.22 질병관리본부
KCDC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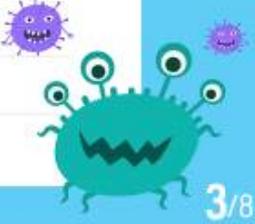
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되는 수인성·식품매개감염병

살모넬라균 감염증,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



예방 TIP!

1.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**올바른** 손씻기
2. **음식은 익혀** 먹고, **물은 끓여** 마시기
3.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(조리도구 소독 등)
4. 설사증상이 있는 경우 조리하지 않기

 3/8

연휴·휴가기간에 단체모임 및 국내외 여행 기회 증가에 따라 집단발생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

【비브리오패혈증】

2018.06.22 질병관리본부
KCDC

어패류를 충분히 조리하지 않은 채 섭취할 경우 비브리오패혈증




예방 TIP!

1.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**바닷물과 접촉 삼가기**
2. 어패류 **반드시 익혀먹기**

(* 만성 간질환, 당뇨병, 알콜중독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특히 주의)

4/8

- ▶ 비브리오패혈증은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는 감염증입니다.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18℃ 이상 상승하는 5~6월경 첫 환자가 발생합니다.
- ▶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
간 질환자, 알코올중독자,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,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복용 중인 자, 악성종양, 재생불량성 빈혈, 백혈병 환자, 장기이식환자, 면역결핍 환자
* 고위험군 치사율 : 50% 내외

2018.05.24 질병관리본부
KCDC

비브리오패혈증 예방 수칙

일반적 예방



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기



**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
바닷물에 접촉하지 않기**

어패류 관리 및 조리 시



**5°C 이하로 저온 보관,
85°C 이상 가열처리 하기**



**조리 시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기
(해수 사용 금지)**



**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하고,
요리한 도마,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하기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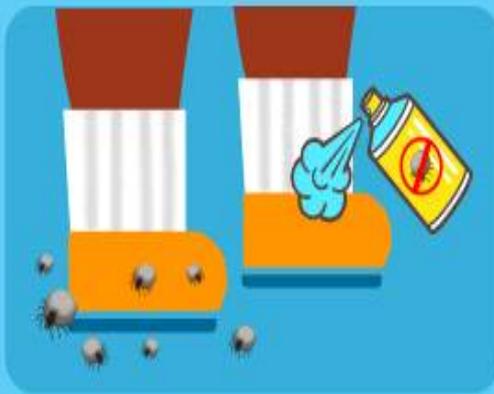
5/5

【쯔쯔가무시증,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(SFTS)】

2018.06.22



세균·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쯔쯔가무시증,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(SFTS)



예방 TIP!

1. 밝은색 긴 옷 착용과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
2. 휴식할 때에는 기피제를 뿌린 돛자리 사용하기
3. 귀가 즉시 목욕을 하고, 옷·소품(모자 등)은 바로 세탁하기
4.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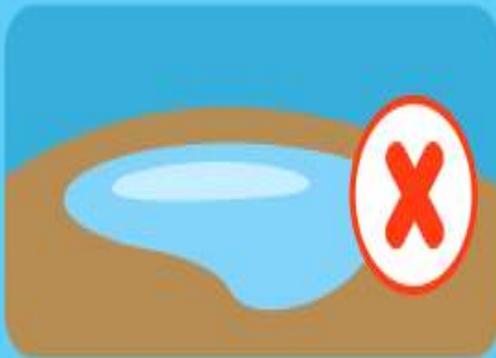
5/8

▶ 더위를 피해 산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데, 풀숲에는 항상 진드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. 진드기로 매개하는 대표적인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(SFTS)이 있습니다.

2018.06.22



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말라리아, 일본뇌염



예방 TIP!

1. 집 주변 고여있는 물 없애기
2. 모기활동이 왕성한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외출 자제하기
3. 외출 시에는 노출부위를 최소화하기
4. 모기기피제 사용하기

6/8

▶ 여름철 주의해야 할 또 하나의 감염병은 모기매개감염병입니다. 매개모기에 물리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, 말라리아, 일본뇌염 등이 대표적입니다.



- ▶ 동남아시아, 남미 등 **따뜻한 기후의 국가를 방문** 할 경우, **지카바이러스감염증, 뎅기열, 치쿠클리아열** 등 모기매개감염병이 발생하므로 모기기피제, 긴소매옷, 모기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▶ **위생이 취약한 지역을 방문**할 경우, 세균성이질, 장티푸스 등 **수인성·식품매개감염병**에 감염될 수 있으니 손을 자주 씻으시고 익힌 음식과 제품화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.
- ▶ **중동지역을 여행**하게 된다면 **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**를 예방하기 위해 낙타와의 접촉을 삼가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을 피하셔야 합니다.

